‘보해+대전저축銀’ 패키지 재매각

인수의향 1곳도 없어…‘중앙부산+도민저축’은 6:1 경쟁

예보 “최대한 빨리 마무리…8월중 영업 재개 하겠다”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가 재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31일 예금보험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 30일 7개 저축은행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 접수 마감 결과,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반면 KB금융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금융지주, 대신증권, 키움증권 등의 6개 금융회사들은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했다.

또 대신증권은 부산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패키지에도 동시에 의향서를 냈다.

이에 따라 예보는 이날 유효 경쟁(2곳 이상 인수의향서 제출)에 실패한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부산과 전주저축은행’ 패키지에 대해 재매각 절차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예보 관계자는 “현재 유효 경쟁이 실패한 2개 패키지에 대해 재매각 절차를 검토중에 있다”며 “예금자들을 계속 기다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재매각 절차를 마무리 짓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겠다”고 말했다.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에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이 한 곳도 없는 것은 영업권이 목포와 대전이라는 지방권이라 인수를 원하는 금융기관들이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인수에 6개 금융기관이 몰린 ‘중앙부산+부산2+도민저축은행’ 패키지의 경우 각 본점이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서울이며 부산2와 도민저축은행은 각각 부산과 춘천에 소재해 있다. 수도권과 기타지역에 총 11개의 본·지점을 둬 수도권과 부산, 강원권 등 다양한 지역에 영업기반을 갖추고 있다.

지역 저축은행 관계자는 “영업정지 중인 저축은행들은 자산·부채 이전방식(P&A)으로 매각이 되기 때문에 인수를 원하는 금융기관에 큰 무리는 없다”며 “다만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는 영업권이 지방이라는 점이 인수자에게 맹점으로 다가서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처럼 매각 저축은행의 숫자가 많고 예금자 문제 때문에 재매각이 시급해진 경우, 재매각 시점에 예보 등에서 ‘보해와 대전저축은행’ 패키지에 ‘당근’을 붙여줄 것으로 기대하는 금융권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예보는 앞으로 3주간 인수자 자산실사를 거친 뒤 6월 말~7월 초에 본입찰을 실시, 7월 중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 본입찰은 우선 패키지별로 진행된 뒤 마땅한 인수자가 없으면 개별 저축은행별로 입찰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와 예보는 매각 대상 7개 저축은행에 대해 이르면 8월 중 계약이전 등을 마무리하고 영업을 재개토록 할 방침이다. /임동률기자 exian@·연합뉴스

도심 초교서 고추 심고 닭 키우고

전남농협, 광산구 동곡초에 체험 농장

도시 초등학생들이 고추 심고 닭·토끼를 기르는 ‘농업체험 교육농장’이 도심 초등학교에 조성돼 화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지난 31일 도시 초등학생들에게 농업과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자 광주시 광산구 동곡초등학교(교장 유상귀)에 1000만원을 들여 2360㎡ 규모의 ‘농업체험 교육농장(Edu-Farm)’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동곡초교 교육농장은 학교 내 여유공간을 활용한 것으로, 이곳에서 학생들은 토마토·감자·옥수수 등 28가지 밭작물을 재배하고 닭·토끼 등 가축을 기르게 된다. 특히 이 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나주시 노안면 이슬촌마을(대표 김성님)에서 농장관리를 맡아 농촌체험학습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장한 교육농장은 도심지역 공터에 보리와 밀 등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그린 코리아 운동’의 하나로 추진됐다.

김용복 농협 전남본부장은 “미래 주역인 아이들에게 농작물 재배를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농촌마을에는 체험학습 등으로 농가소득 증대 기회를 제공, 1교1촌 농촌체험학습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1인당 이자부담 48만원…1년만에 최고

1인당 이자부담액이 1년 만에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1인당 연간 이자부담액은 48만525원으로 지난해 3월 48만6838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3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435조1271억원, 신규취급액 기준 가중평균 대출금리는 연 5.41%였다.

산술적으로 보면 4인 가족이 원금을 제외하고 이자로 나가는 돈만 200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1인당 이자부담액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44만~46만원대를 맴돌았으나 3월에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과 대출금리가 모두 상승하면서 1년 만에 48만원대로 올라섰다.

지난달에는 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대출금리가 연 5.70%로 전월보다 0.08%포인트 떨어졌지만, 이는 기업대출이 크게 하락한 데 기인한 것으로 가계대출은 오히려 연 5.41%에서 5.42%로 올라 개인의 이자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1인당 명목 국민소득(GNI)에서 개인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소규모 개인기업 등을 포함한 1인당 개인부채는 1918만원으로 1인당 GNI(2400만원)의 79.9%에 달했다.

1인당 개인부채는 총 개인부채(937조3000억원)를 추계인구로 나눈 값이다. 1인당 개인부채가 1인당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65.5%에서 2005년 69.6%, 2006년 73.7%, 2007년 76.2%, 2008년 77.6%으로 꾸준히 증가, 2009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80%를 돌파했다. /연합뉴스

상큼한 ‘유혹’ 광주 신세계백화점 지하 1층 식품관에서 31일부터 ‘여름철 열대과일 모음전’이 열렸다. 애플망고는 1개에 5900원, 망고스틴은 1망에 1만6500원이다. 〈광주 신세계 제공〉

송기진 光銀행장 차남 ‘조용한 결혼’

청첩 안돌리고 축의금·화환도 안받아

송기진 광주은행장이 최근 직원들과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차남 결혼식을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일 광주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송 행장은 지난달 28일 서울 고려대학교 교우회관에서 가족과 친지들만 참석한 차남 승록씨의 결혼식을 조용하게 치렀다.

고려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현재 롯데그룹에 근무 중인 차남 승록씨는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송 행장의 뜻에 따라 신랑과 신부 가족 등 100여명 만 초대한 채 결혼식을 조촐히 치렀다.

송 행장은 차남 결혼식에 청첩장을 아예 만들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은행 직원들도 최근에야 결혼사실을 알게 됐고 외부화환이나 축의금도 일절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행장의 며느리는 고려대를 졸업하고 모 대학원에 재학중인 재원으로 캠퍼스 커플로 만나 결혼에 골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정·관계 고위인사 자녀들의 조용한 결혼식이 새 풍속도로 자리잡은 가운데 송 행장도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알리지 않은 것 같다”며 “지금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은행권 PF 정상화 기구 내달 설립

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다음달 중 설립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0일 연합자산관리(유암코)와 7개 시중은행이 ‘PF 정상화 뱅크(일명 PF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시중은행 가운데는 국민은행을 비롯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이 참여했다.

PF 배드뱅크는 유암코와 은행들이 출자금 8000억원, 대출금 4280억원으로 총 1조2280억원을 투입하는 사모펀드(PEF) 형태로 만들어진다.

PF 대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국민은행, 우리은행이 각각 출자금 1480억원, 대여금 1092억원을, 농협도 출자금 1200억원, 대여금 1372억원을 부담한다.

신한은행과 산업은행은 각각 출자금 920억원, 대여금 194억원을,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각각 출자금 520억원, 대여금 168억원을 책임진다. 유암코도 960억원을 출자한다.

유암코와 시중은행들은 관계기관의 승인 등 절차를 거쳐 내달 중 배드뱅크를 설립할 예정이며, 설립 후 1조~1조5000억원의 부실채권을 우선적으로 매입한다.

은행권에서는 건설사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PF 부실채권 규모가 증가해 PF 부실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은행연합회는 민간 자율에 의한 부동산PF 부실채권기구 설립으로 은행의 자산 건전성이 높아지고 PF 사업장 구조조정으로 건설사의 조기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외환거래 2분기 연속 400억달러 돌파

외국환은행의 올해 1분기 하루 평균 외환거래규모가 작년 4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400억달러를 돌파했다.

3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1분기 중 외국환은행의 외환거래 동향’에 따르면 외환거래규모(은행간거래, 대고객거래 포함)는 하루 평균 463억1000만달러로 전분기(399억1000만달러)에 비해 8.3% 늘었다.

수출 호조로 경상거래가 늘어난데다, 조선업체의 수주 확대와 이에 따른 선물환매도 증가가 1분기 외환거래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현물환거래는 184억달러로 전분기(158억달러)보다 15.9% 증가했지만 선물환 거래는 71억2000만달러로 전분기(72억7000만달러)에 비해 2.1% 감소했다. /연합뉴스